

# 수원시 소규모 산업현장 안전지도와 점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시작

14일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 보고,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 발표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와 점검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 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 기념촬영 모습. [사진=수원시]

1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노동안전지킴이 6명을 비롯한 경기 남부 15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62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안전시설 설치 상태▲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며 "지도·점검을 할 때 산업현장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2025년 활동 시작... 소규모 현장 안전지도 점검

2024년 운영 실적 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만들 것"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와 점검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 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

16일 수원시는 경기도가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노동안전지킴이 6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경기 남부 15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총 62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며 "지도·점검을 할 때 산업현장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수원시, 소규모 산업현장 안전 점검 나선 '노동 안전지킴이'

14일 '2025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수원지역 현장지도·점검3개조 구성, 연말까지 활동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레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특레시(시장 이재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와 점검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 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수원 지역 노동안전지킴이 6명과 경기 남부 15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62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해 합동점검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안전지킴이에 협조해달라"며 "시민들도 안전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본격 활동

지역서 현장지도 점검  
3개조 구성 활동 개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와 점검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 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노동안전지킴이 6명을 비롯한 경기 남부 15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62명이 참석했다.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날 수원시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며 "지도·점검을 할 때 산업현장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 경인종합일보

### 수원특례시, '노동안전지킴이' 2025년 활동 시작



/수원특례시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와 점검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 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노동안전지킴이 6명을 비롯한 경기 남부 15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62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특례시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025년 03월 17일 (월)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며 "지도·점검을 할 때 산업현장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수 기자 / jonghapnews.com

## 産經日報

2025년 03월 17일 (월)

### 수원특례시 '노동안전지킴이' 2025년 활동 시작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와 점검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 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노동안전지킴이 6명을 비롯한 경기 남부 15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62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는 2024년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노동 안전지킴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형규기자 chg@skilbo.com